

## 사이유(彩釉) 자기

사이유는 도예가 3 대째 도쿠다 야소키치(1933~2009)가 고안한 현대 유약 기법으로, 선명한 색상의 유약이 녹아내리며 만들어내는 섬세한 그라데이션이 특징입니다. 1997 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3 대째 야소키치는 구타니야키 명가인 도쿠다 가문의 3 대 후계자로서, 구타니야키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조부인 제 1 대 도쿠다 야소키치(1873~1956)는 17 세기 고쿠타니에서 사용된 유약을 재현한 인물로, 3 대째 야소키치는 그 조부를 스승으로 삼아 배웠습니다. 제 1 대 야소키치는 뛰어난 우와에쓰케(유약을 발라 구운 도자기 표면에 다시 채색하여 가마에 넣고 저온으로 구워 내는 것) 기법으로 유명했으며, 그 기술은 3 대에게 계승되었습니다.

3 대째 야소키치는 특히 고쿠타니의 ‘아오데’라고 불리는 양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오데는 유약에 빨간색을 사용하지 않고, 진한 녹색, 노란색, 자주색, 감청색 등의 색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3 대째 야소키치가 아오데 유약으로 현대적인 미를 표현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치던 중에 우연히 유약이 흘러내리며 몽환적인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소성 온도가 평소보다 높아진 탓에 유약이 자기 표면에서 서로 녹아 섞이며 그라데이션 효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로라나 초신성에도 비유되는 이 색채 스펙트럼을 야소키치는 ‘사이유’라고 이름지었습니다.

1997 년에 3 대째 야소키치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아 사이유의 보존과 전파에 힘썼습니다. 야소키치는 2009 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사이유 기술을 이어받은 그의 장녀가 4 대째 야소키치(1961~)를 계승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